

꿈꾸는 어와나

웅천교회 T&T 한다운

저는 웅천교회 어와나를 다니고 있는 T&T단원 한다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곱 살이 되던해에 우리교회에서 어와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나 이제는 더욱 멋진^^ T&T단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어와나를 시작한다고 할때 저는 어와나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와나에서 하는 게임시간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핸드북 시간 성경암송은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구나 암송을 통해 멋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좋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와 상에 욕심이나서 게임도하고 암송도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엄마와 함께 그날 그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암송하니 암송을 왜 해야 하는지를 조금더 깊이 있게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단순한 암송에서 묵상과 기도를 하며 암송하다보니 암송이 더욱 재미있어졌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암송하기 싫을때도 있어서 꾀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어와나 선생님이신 엄마는 제게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십니다.

저는 어와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어와나 단원으로 최선을 다해 성경을 암송할것입니다. 지금은 이다음에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제게 큰 꿈을 주실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와나 단원들이 열심히 어와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Daeun, Han, T&T member of UngCheon church

My name is Daeun Han as a member of T&T in UngCheon church.

When I was seven years old, I started to participating in Awana.

Three years passed in a flash, and now I become T&T member proudly :).

As my church announced to start Awana, I didn't know what Awana was.

However, game time was really exciting and I gained confidence to memorize bible verses although that was slightly difficult for me.

Not only that, it made me happy to be awarded with recitation.

At the beginning, I've got greedy to be a winner in the game and recitation. Now, I can understand deeply why I should memorize verses since I've read, meditated and memorized bible everyday with my mom.

I can enjoy recitation time and put my energy fully because there were some changes from passive memorization to active prayer and meditation. Sometimes, I shirk my recitation, but my mother-Awana teacher always encourages me with high praise I'm really into Awana. I'll do my best to memorize bible as proud member of Awana from now on.

I don't know exactly what I'm going to do when I grow up, but I'm expecting for God to give me calling though bible.

My wish is that all members of Korea work diligently.

To be a workman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to present myself to God.

